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상담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 과정

: 원형-의향 모형을 중심으로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김 우 림

상담 서비스 이용 의사결정 과정




: 원형-의향 모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창 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
김 우 림

김우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원장 김 계 현 (인) 
부위원장 김 동 인 (인) 
위 원 김 창 대 (인) 

국문초록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 도움추구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여태까지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상담 서비스 의사결정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왔으나, 이중처리이론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성적인 경로 뿐 아니라 사회반응적이고 휴리스틱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함을 주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처리이론의 하나인 원형-의향 모형(Prototype Willingness Model)을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 의사 결정 과정에 이성적인 경로와 휴리스틱적인 경로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담 서비스 이용 결정에 있어 의도로 대표되는 이성적인 경로보다 의향으로 대표되는 휴리스틱적인 경로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이성적인 경로만을 고려해왔던 전문적 도움추구 영역에서 휴리스틱적인 경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상담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점을 가진다.

주요어 : 상담 서비스 의사결정, 전문적 도움추구, 원형-의향 모형 (Prototype Willingness Model), 이중처리이론,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학 번 : 2015-2155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9
1. 전문적 도움추구	9
2. 합리적 행동 이론	11
1) 합리적 행동 이론	11
2) 의도	12
3) 태도	12
4) 주관적 규범	13
3. 이중처리이론	14
4. 원형-의향 모형	16
1) 원형-의향 모형	16
2) 의향	18
3) 원형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절차	24
3. 연구 도구	25

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25
2) 주관적 규범	26
3)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26
4)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호감도 및 유사성	27
5) 의향	29
6) 행동	30
4. 자료 분석	31
 IV. 결과	33
1. 기술통계	33
2.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34
3. 측정모형 검증	37
4. 구조모형 검증	41
1) 구조모형 검증 및 간접효과 확인	41
2) 경쟁모형 비교	43
 V. 논의 및 결론	46
1. 결과 요약	46
2. 논의 및 제언	47
 참고문헌	55
부록	67
 Abstract	77

표 목 차

<표 1> 인구통계학적 빈도 및 구성비율	23
<표 2>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33
<표 3>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34
<표 4> 이성적인 경로의 회귀분석 결과	35
<표 5> 휴리스틱적인 경로의 회귀분석 결과	36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9
<표 7>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	40
<표 8> 제안모형 검증 결과	42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형적합도 비교	44

그 립 목 차

[그림 1]	검증 모형	5
[그림 2]	합리적 행동 이론	11
[그림 3]	원형-의향 모형	16
[그림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38
[그림 5]	구조모형 검증 결과	41
[그림 6]	경쟁모형1	44
[그림 7]	경쟁모형2	4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입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Wampold, 2000), 심리적 혹은 대인 관계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찾지 않고(Corrigan, 2004) 상담받는 것을 꺼린다(Gross & McNullen, 1983). 미국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40% 정도만이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 Issakidis & Carter, 2001).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 현상을 서비스 갭(Service gap)이라고 한다(Cramer, 1999; Kushner & Sher, 1991). 특히 동양인의 경우 심리적 문제 혹은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통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 갭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살률이 10만명 당 28명으로 2003년부터 12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30.3%인 등,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비율은 11% 정도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6, 2011).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왜 도움을 찾기 어려운지, 그리고 서비스 갭을 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전문적 도움 추구(professional help-seeking)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대표적인 것은 오늘날에도 널리 쓰여지는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다(Fishbein & Ajzen, 1975). 합리적 행동 이론은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인 이성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렇기에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intention), 혹은 의도적으로 만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합리적 행동 이론이나 이 모형을 확장시킨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85)이 실질적 행동보다는 의도 자체만을 잘 예측한다는 연구결과와(Armitage & Conner, 2001), 의도가 도움추구 행동을 3-5% 정도 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연구들을 통해 이론의 한계점이 지적되었다(Wilson & Deane, 2005; Wilson, Deane, Marshall, & Dalley, 2008). 사람들은 늘 계획한 대로 행동하지는 않기 때문이다(Sheeran, 2002). 이성적 행동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으로 대표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 결정 방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며 나온 이론이 바로 이중처리이론(Dual-process theory)이며, 다양한 이중처리이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Petty와 Cacioppo(1986)의 정교화 가능성이론(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이나 Chaiken(1980)의 휴리스틱 체계 모형(Heuristic Systematic Model)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중처리이론은 사람이 이성이라는 한 가지의 경로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Chaiken & Trope, 1999).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는 휴리스틱(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사용하는 반응적이며 무의식적인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이성적인 경로이다(Gerrard, Gibbons, Houlihan, Stock, & Pomery, 2008).

이중처리이론 중 하나인 원형-의향 모형(Prototype/Willingness Model)은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이성의 경로 외에 사회 반응적인 과정이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는데(Gibbons, Gerrard, Blanton, & Russell, 1998), 실제로 합리적 행동 모형이 건강 관련 행동을 31% 설명할 때(Armitage & Connor, 2001), 반응적 행동 모형을 같이 고려한 모형은 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원형-의향 모형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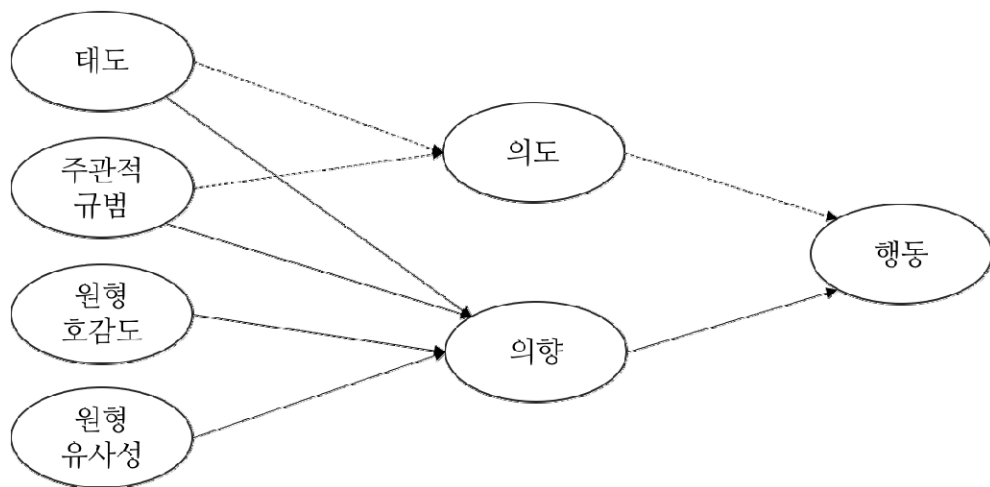
(Gerrard, Gibbons, Reis-Bergan, Trudeau, Vande Lune, & Buunk, 2002). 계획적인 경로인 의도와는 달리, 의향은 주어진 행동촉진적 상황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해당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경향성에 집중한다. 의향과 함께 원형-의향 모형에서 강조된 원형(prototype)은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에 대한 정신적인 표상을 말하는데 (Gibbons & Gerrard, 1995), 예를 들어 상담에 대한 원형은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말한다. 최근 연구에서 Hammer와 Vogel(2013)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형-의향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의도보다 의향이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훨씬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원형-의향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에서 이중경로이론을 상담에 적용한 논문은 드물게 찾아볼 수 있으며(문수정, 김계현, 2012), 전미선과 신희철(2016)은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휴리스틱적 경로의 주요변인인 원형과 의향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원형의 호감도와 유사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이 증가하고, 이러한 의향의 증가가 전문적인 도움 추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원형-의향 모형의 이성적인 경로와 휴리스틱적인 경로를 함께 적용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을 포함하는 전체 원형-의향 모형을 적용하여, 전문적인 도움추구 의사결정에 이성적인 경로와 휴리스틱 경로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특히 의향은 익숙하지 않거나 사전 경험이 없는 행동을 해야 할 때(Gibbons, Gerrard, Reimer, & Pomery, 2006; Pomery, Gibbons, Reis-Bergan, & Gerrard, 2009)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행동을 해야 할 때(Gibbons, Gerrard, & Lane, 2003) 행동을 잘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상

담을 홍보해야 할 대상인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상담은 아직 낯설고 새로운 행동이며(Olfson & Marcus, 2010) 사회적 낙인이나 자기 낙인 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행동(박준호, 서영석, 2009; Vogel, Wade & Haake, 2006)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향-원형 모델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에 계획적인 의도와 상담에 대한 태도만을 기반으로 하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연구들에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결정에 있어 이성적인 경로와 휴리스틱적인 경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이를 위해 태도, 주관적 규범, 원형, 의도, 의향을 통해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하는 원형-의향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검증 모형

주. 점선은 이성적 경로를, 실선은 휴리스틱적 경로를 나타냄.

연구가설.

1. 상담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상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원형은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상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의향 역시 높

게 나타날 것이다.

2-2.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이 긍정적일수록 의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2-3.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의향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이다.

3. 의도와 의향, 원형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의도가 높을수록 행동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3-2. 의향이 높을수록 행동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3-3. 원형 유사성과 원형 호감도는 의향을 통해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의도

의도란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변인이다. 행동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가를 나타내는 태도와 다른 이들이 행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지하는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을 매개하여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도란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기로 계획하고 있는가로 정의되기 때문에 (Ajzen, 1991),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을 때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라면, 보통 행동 이전에 행동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기 때문이다.

2) 원형

원형이란 원형-의향 모형에서 의향과 함께 휴리스틱적 경로를 이루는 특징적인 요소로써, 어떤 행동의 원형이라고 하면 ‘해당 행동을 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이미지’로 정의된다(Gibbons & Gerrard, 1995). 예를 들어, ‘담배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담배를 피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이미지를 말하며,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이를 형용사 목록으로 정리하여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데(왕윤정, 2014), 담배의 원형이라고 하면 가능한 형용사들의 예를 들자면, ‘불량한,’ ‘멋있는,’ ‘건강에 좋지 않은,’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상담의 원형이란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로 정의될 수 있다.

3) 의향

의향은 원형-의향 모형에서 의도와 함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사전에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행동 촉진적인 상황을 만나면 해당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Gerrard 등, 2008). 예를 들어, 담배에 대한 의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담배를 피려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우연히 담배꽂초를 줍거나 친구가 담배를 권하는 등의 담배를 피는 행동을 촉진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담배를 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의향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담배를 필 가능성이 낮다. 의향은 의도와는 구별되게 원형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평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문적 도움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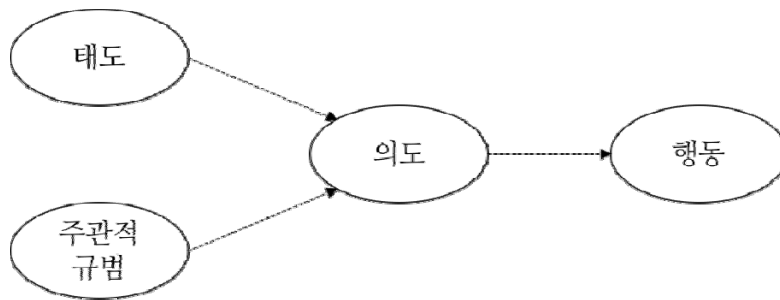
전문적 도움 추구란 개인이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때 정신과, 심리치료, 상담 등의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을 뜻한다(Fisher & Turner, 1970). 왜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이는 상담을 찾으며 다른 이는 상담을 찾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많은 국내의 연구들이 상담에 대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들을 발견하였는데, 상담에 접근하도록 하는 요인들로는 심리적 불편감이 높을수록(유영란, 이지연, 2006), 이전 상담 경험이 있고(박준호, 서영석, 2009),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조망이 있으며(김주미, 유성경, 2002), 내담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남숙경, 이상민, 2012) 등이었다. 특히 심리적 불편감의 경우, 호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불편감, 여성인 것, 사회적 지지망, 성격특성 등등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반적인 도움추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전문적 도움 추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는 심리적 불편감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ickwood & Braithwaite, 1994). 국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심리적 불편감은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졌다(김주미, 유성경, 2002; 장영임, 1999). 회피요인으로서는 자기낙인/사회적 낙인이 높은 경우(박준호, 서영석, 2009), 자기은폐 성향이 있을수록(신연희, 안현의, 2005), 수평적 개인주의보다는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이 있을수록(김주미, 유성경, 2002) 상담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이렇게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인지 과정에 집중했다

(Bayer & Peay, 1997; Codd & Cohen, 2003).

전문적 도움추구 영역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된 변인들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인데, 대다수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의도를 행동을 대신하는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고 있다(김동민 & 양대희, 2010; 김수현, 2009; 김주미 & 유성경, 2002; 신연희 & 안현의, 2005; 이미숙, 2013; 이지연, 강지연 & 이인숙, 2008; 조영아, 2009; 등). 이는 도움추구 태도가 행동에 대해 상당히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현상이지만(Fischer & Turner, 1970), 태도로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심리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적인 도움을 찾기도 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Deane & Todd, 1996). 상담에 대한 태도가 대학생들의 실제 상담을 찾는 행동에 있어서는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Bosmaïjan & Mattson, 1980). 따라서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을 태도나 의도 척도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행동에 대한 태도나 의도의 영향력을 가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Fishbein과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 이론인데,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합리적 행동 이론이 제시하는 전체 모형을 생략하고 태도나 의도만을 다루었다(최희철, 2009).

2. 합리적 행동 이론

1) 합리적 행동 이론



[그림 2] 합리적 행동 이론

주. 출처: Fishbein & Ajzen(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합리적 행동 이론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Fishbein & Ajzen, 1975). 합리적 행동 이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바탕으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계획한다고 생각하였다(허태균, 한민, 김연석, 2004: 최희철 2009 재인용). 즉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의도이며, 의도는 다분히 이성적이며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담에 적용할 경우, 의도는 한 개인이 얼마나 가까운 장래에 상담을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된다(Cramer, 1999).

2) 의도

의도는 행동 아래에 있는 동기적인 요인으로 Ajzen(1991)은 이를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기로 계획하고 있는가로 정의한다. 의도는 의향과 비교하여,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를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영역에서 살펴보자면,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란 심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상담을 받을 계획적인 의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연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척도는 Cash, Begley, McCown과 Weise(1975)가 개발한 15문항의 척도를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수정하여 완성한 상담 의도 척도(Intentions Seeking Counseling Inventory; ISCI)이다. 이를 국내에서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번안하였고,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와 함께 전문적 도움추구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이다. 이성적 행동 이론에서 의도는 행동을 예측하는 유일한 변인으로, 이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omery & Gibbons, 2009).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있다.

3) 태도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Ajzen & Fishbein, 1975), 혹은 얼마나 필요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를 뜻한다(남숙경, 2010). 그러므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란 상담을 받는 행동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혹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해당 행동을 하려는 의도 또한 상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성경(1999)이 처음으로 Fischer와 Turner(1970)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를 변안하여 사용한 것을 기점으로, 태도를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신연희, 안현의, 2005). 처음에 척도가 개발되었을 때에는 낙인에 대한 내인성, 대인관계의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라는 4요인 구조로 생각되었으며, 이를 축약한 2요인 구조의 단축형 척도가 개발되었다(Fischer & Farrina, 1995). 하지만 하위요인척도 가설의 타당도와 신뢰도 문제가 지적되면서(유성경, 2005), 척도의 구조에 대한 타당화 검증 작업들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남숙경(2010)이 단축형 척도의 가설을 수정하여 긍정태도와 필요성, 부정태도와 불필요성의 2요인 구조를 제안하였다.

4)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이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려 할 때 한 사람이 느끼는 주변의 사회적 압력을 말하며, 흔히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기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Colman, 2015). Ajzen(2010)은 구인측정을 위한 설문제작 방법을 안내하면서, 주관적 규범의 예시로 “나에게 중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측정방법을 추천했다. 이 문항은 주관적 규범을 나타내는 가장 직관적인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주관적 규범은 나와 가까운 타인들이 특정 행동에 가지고 있는 태도와 평가를 말한다. 전문적 도움추구 영역에서의 주관적 규범은 곧 상담을 받는 것에 있어 내담자의 주요 타인들이 상담받는 것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뜻하게 된다. 이론에 따르면 내담자가 인지한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또한 증가하게 된다.

3. 이중처리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의 확장된 형태인 계획된 행동이론은 건강 관련 행동에 대한 지난 30년간 주요한 이론적 접근 방법이었다. 이 이론은 행동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했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비판 또한 받아왔다(Ouellette, Hesselting, Gibbons, Reis-bergan, & Gerrard, 2005). 예를 들어, 계획된 행동 이론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하여 의식적이고 이성적이며 규칙에만 기반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춰, 행동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인 영향력은 배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Sheeran, Gollwitzer & Bargh, 2013). 또한 이 이론이 지나치게 인지적인 전통에 기반하고 있어 정서적인 영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Conner, Godin, Sheeran, & Germain, 2013), 이론의 핵심적인 경로인 의도의 변화가 행동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비판 또한 받았다. Webb과 Sheeran(2006)은 많은 사회심리학과 건강심리학의 수많은 이론들이 의도가 행동을 일으킨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지만, 의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들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는 상관 연구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47개의 의도-행동 관계 간 실험 연구를 살펴보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중간 크기에서 큰 크기의 의도의 변화는($d=0.66$) 상당히 작은 행동 변화($d=0.36$)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의 변화에 따라 행동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의도, 즉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결정 경로를 통해서만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행동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중처리이론(dual-process model)’을 제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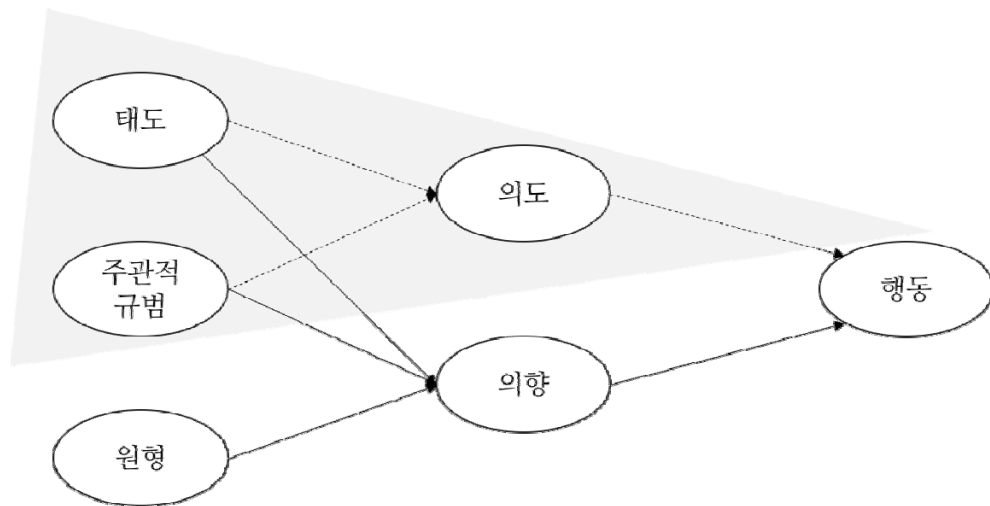
이중처리이론은 사람이 합리적 이성이나 계획이라는 한 가지의 경로가 아니라, 상황반응적이며 자동적인 경로 역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중처리이론에서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두 가지

의 경로를 통해 행동을 결정한다고 말한다(Petty & Cacioppo, 1986). 정교화가능성 모형(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tty & Cacioppo, 1986), 휴리스틱-체계적 모형(Heuristic-Systematic Model; Chaiken, 1980), 원형-의향 모형(Prototype/Willingness Model; Gerrard 등, 2008) 등 다양한 이중처리이론들이 나오게 되면서, 두 가지 경로들에 대한 이름 또한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론들에서 말하는 두 가지 경로는 비슷한 개념을 지칭한다. 첫 번째 경로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사고과정에 기반하는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휴리스틱이나 정서에 기반하는 경로이다(Gerrard 등, 2008). 이 모형들은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분석적인 그리고 휴리스틱적인 두 가지 처리 과정을 동시에 함께 사용한다고 설명하는데, 프로이트가 말한 의식적, 무의식적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Freud, 1922; Boyer, 2006; Sloman, 1996; Gerrard 등, 2008 재인용).

이중처리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의 행동은 이성적인 경로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휴리스틱 혹은 사회반응적인 경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자연스러우며(Hofmann, Gschwendner, Friese, Wiers, & Schmitt, 2008), 실제로 이중처리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했을 때, 합리적 행동이론만을 사용하여 행동을 설명했을 때보다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많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Sheeran 등, 2013; Todd 등, 2016).

4. 원형-의향 모형(Prototype/Willingness Model)

1) 원형-의향 모형



[그림 3] 원형-의향 모형

주. 출처: Gerrard, M., Gibbons, F. X., Houlihan, A. E., Stock, M. L., & Pomery, E. A. (2008). A dual-process approach to health risk decision making: The prototype willingness model. *Developmental Review*, 28(1), 29 - 61.

많은 이중처리이론들 중 원형-의향 모형은 주로 건강에 관련된 행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다(Gerrard, Gibbons, Stock, Vande Lune, & Cleveland, 2005). 실제로 이 이론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행행동을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되는데, Gibbons 등(1998)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비행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계획하

고 참여할 의도는 없으나, 비행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예, 술 마시는 사람은 쿨하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며, 이렇게 비행행동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친구의 권유나 우연한 행동촉진적인 상황에 처하면 계획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적인(reactionary) 행동경로를 원형-의향 모형에서는 의향(willingness)으로 측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향이란 ‘행동경향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의 해당 행동에 대한 개방성을 뜻한다(왕윤정, 2014).

원형-의향 모형은 사람의 계획되지 않은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의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Gerrard 등, 2008), 현재 이론이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서 건강에 위협적인 행동(예, 술, 담배, 가벼운 성관계 등)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예, 예방 주사, 콘돔 사용 등),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예, 장기 기증)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적용되고 있다(Blanton, Van Den Eijnden, Buunk, Gibbons, Gerrard, & Bakker, 2001; Hyde & White, 2009; Ravis, Sheeran, & Armitage, 2006). 이를 통해 원형-의향 모형이 단순히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상당히 최근에는 원형-의향 모형을 사용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도 혼자서 행동을 볼 때에는 약 15%의 행동 설명력을 가진 반면, 의도와 의향을 합친 모형으로 행동을 보면 약 20%의 행동에 대한 변량을 설명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원형이 의도가 아닌 의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odd, Kothe, Mullan, & Monds, 201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원형-의향 모형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a)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할 때(Gibbons 등, 2006; Pomery 등, 2009)와(b)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행동을 해야 할 때(Gibbons, Gerrard & Lane, 2003) 의도보

다 의향이 행동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확한 행동 모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다양하다. Ravis, Sheeran과 Armitage(2006)는 건강 위협적 행동 뿐만 아니라 건강 보호적 행동들에 대한 원형과 의도 간의 관계를 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원형이 의향 뿐 아니라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Hammer와 Vogel(2013)은 이러한 원형-의향 모형을 상담에 적용하는 시도를 했다. 이들은 먼저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한 원형을 연구하여 10개의 상위 원형을 도출해내고, 도출된 원형을 바탕으로 원형-의향 모형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검증 결과 원래의 원형-의향 모형 모형이 주장 하던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나 상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a) 낯설고 새로운 행동이며(Olfson & Marcus, 2010)(b) 사회적 낙인이나 자기 낙인 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행동 (박준호, 서영석, 2009; Vogel, Wade & Haake, 2006)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원형-의향 모형이 의도보다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질 때와 유사한 전제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의향

Gibbons 등(1998)은 의향이 의도에 가지는 차이점에 대해, 의향은 행동에 대한 상황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상담에서의 예를 들자면, 한 학부 여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학과에서 경고를 받고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받게 된다면 전에는 학내의 상담센터에 갈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도 모르던 이 여학생은 우연한 기회에 상담센터에 가게 되고, 그것이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Hammer & Vogel, 2013). 이러한 행동은 사전에 계획하거나, 상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결정 과정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에 대한 반응으로써 만들어진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왕윤정,

2014).

3) 원형

원형 이론(prototype theory)은 원래 Rosch(1973)에 의해 시작되었고, Fehr(1988)에 의해 확장되어 사용되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흔한 특성을 찾는데 사용되곤 했다(Horowitz, French & Anderson, 1982). 원형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를 개념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대표성을 가지는 예제로 정리하는 인지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Rosch, 1973). 원형-의향 모형에서는 이러한 원형을 어떤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전형적으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정신적 표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Gibbons & Gerrard, 1995). 사람들은 이러한 원형을 장기기억에 저장하게 되는데, 특히나 낯설거나 위험성이 있는 도움추구와 같은 행동의 경우 그러하다(Skowronski & Carlston, 1989). 원형-의향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한 원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동을 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이미지에 연관된다고 생각한다(Gerrard 등, 2005). 예를 청소년들은 음주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Snortum, Kremer, & Berger, 1987), 공적 장소나 또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 자신들이 그러한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원형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호감도(Favorability)는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Gerrard 등, 2005).

원형-의향 모형에서는 원형이 의향에 영향을 미쳐, 이것이 행동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Gerrard 등, 2008), 여러 논문들에서 원형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의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odd 등, 2016), 모든 논문에서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원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해당 원형에 대한 호감도와 유사성(similarity)을 측정하는데, 호감도는 원형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유사성은 원형이 한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해당 원형을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다(Todd 등, 2016). 호감도와 유사성은 상호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Gibbons 등, 1998), 여러 연구들에서 드러난 결과들은 원형에 대한 호감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행동, 의향,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냈다(Gerrard 등, 2005; Hyde & White, 2009; Todd 등, 2016).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전형적인 원형이 싫을수록 이를 좋지 않게 보며, 이는 원형과 자신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를 두어 특정 영역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시도라는 설명이 있는데(Gibbons, Gerrard, Lando, & McGovern, 1991),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해보면 호감도의 경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싶어하지 않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유사성의 경우 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Vogel과 Hammer(2013)는 미국 대학생들은 대상으로 원형-의향 모형을 적용하여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한 원형을 조사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은(stressed)’, ‘화가 난(upset)’, ‘고군분투하는(struggling)’, 행복하지 않은(unhappy)’, ‘감정적인(emotional)’, ‘걱정하는(worried)’,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distressed)’, ‘불안한(anxious)’ 등의 특성들을 대표적으로 뽑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인식은 주로 부정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원형은 의향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연구자들이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원형에 대한 호감도가 낮을수록 의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원형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직

접적으로 호감도를 묻은 것이 아닌, '상담사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의 형용사(원형)들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생각(Gerrard 등, 2005; 왕윤정, 2014)하십니까?'라는 원형의 정확도에 가까운 질문을 던진 것이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형의 유사성은 측정하지 않았는데,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원형의 호감도보다 원형의 유사성이 의향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들이 있기에(Hyde & White, 2009; Todd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호감도를 더 직접적인 질문으로 물어보고 원형의 유사성 또한 질문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왕윤정과 서영석(2015)이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받는 사람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여, 한국 대학생들이 상담받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형 36개를 밝혀냈다. 각 원형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얼마나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정을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평정 점수 3.0(4.0만점)인 상위 10개의 원형들을 살펴보자면, '내적 갈등이 많은,' '마음이 힘든,' '스트레스가 심한,' '생각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등이었다. 연구자들은 수집한 원형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9개의 특성을 추려냈는데, 각 군집들은 '적극적인,' '성격이 예민한,' '깊게 생각하는,' '불행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 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해석하였다(왕윤정 & 서영석, 2015). 이는 미국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결과로, 미국 연구가 개인적인 부정적 성격적 특성이 주로 도출되었다면, 한국 연구에서는 상황적인 어려움 또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서울에 소재하는 10~30대 사이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 그 중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특정 행동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의 경우 원형의 호감도나 유사성을 생각할 때, 경험이 원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형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이전에 행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왕윤정, 2014; Gerrard 등, 2005). 특히 원형 유사성의 경우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인데, 행동을 이미 경험해본 경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므로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 설문지에서 본격적인 설문들이 진행되기 전에 “이전에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으며, 여기에 ‘아니오’로 대답한 응답자에 대해서만 다음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총 응답자 230명 중 이전 상담경험 여부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4명의 응답은 연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226명의 응답지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빈도 및 구성비율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여	156	69
	남	70	31
연령	10대	23	10.2
	20대	202	89.4
	30대 이상	1	0.4
과정	대학생	194	85.8
	대학원생	32	14.2
전공	인문계열	34	15.0
	사회과학계열	56	24.8
	자연과학계열	23	10.2
	예체능계열	13	5.8
	공과계열	38	16.8
	의약과계열	31	13.7
	사범계열	17	7.5
	기타	14	6.2
총 계		226	

연구에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업과정, 전공 순으로 제시하였다.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9%, 31%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가 89.4%로 가장 많았으며 10대(10.2%)와 30대(0.4%)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학생이 86%로 대학원생(14%)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다양한 전공들이 골고루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사회과학계열(25%)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공과계열(17%), 인문계열(15%), 의약과계열(14%) 순으로 많은 응답자를 보였다.

2. 연구 절차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인 대학(원)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구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 여러 대학의 커뮤니티 게시판들에 설문지 링크와 함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광고 본문에서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지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자료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이전에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이전 상담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전 상담 경험에 대해 최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대학교 내 상담실, 사설 상담실, 교회 상담실, 청소년 상담센터 등 상담기관에서 상담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1:1 상담을 받거나 집단 상담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왕윤정, 2014).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를 누른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예”를 누른 경우에는 바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며 설문이 자동 종료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질문, 원형 호감도와 원형 유사성,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 의향, 행동(의사결정)의 척도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설문에 대한 디브리핑과 상담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을 위해 상담센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이전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6부였으며, 이 자료를 코딩하여 통계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였다. 코딩한 자료의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위해서 SPSS 24.0을 이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검증 및 간접효과 확인을 위해서는 AMOS 24.0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는 Fischer와 Turner(1970)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였다. 이 척도는 낙인에 대한 내인성, 대인관계의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4요인 구조를 가진 29문항의 척도였다. 이 29문항에서 일부 문항들을 제거하여 합산점수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Fischer와 Farrina(1995)의 단축형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ATSPPH-SF)이다. 본래의 척도는 유성경(1997)이 번역한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숙경(2010)이 수정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척도를 상담 전공 교수의 자문을 얻어 좀 더 원문 척도에 가까운 뜻이 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나는 언젠가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를 “나는 언젠가는 상담을 받아보기 원할 수도 있겠다”로 수정) 남숙경(2010)이 이 척도를 타당화 한 결과 기존의 2요인 구조와는 다른 형태로 2요인 구조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담에 대한 긍정태도와 필요성(예, “만약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다른 방법보다 전문적 도움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정태도와 불필요성(“자신의 문제를 상담사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의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상담에 대한 부정태도와 불필요성 하위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적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긍정적이도록 점수를 계산하였다. 남숙경(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75로 나타났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상담에 대해 개인의 주요 타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인식으로, 상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개인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담 행동에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척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각 연구마다 개념에 의거하여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최희철 2009; Hammer & Vogel, 2013; Rivis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김지숙(2016)이 개발한 상담에 대한 주관적 규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의 6점 리커르트 척도로, 1점의 ‘절대 아니다’부터 6점의 ‘매우 그렇다’까지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 중 1번 문항과 3번 문항은 부정 문장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점수 합산을 위해 역채점하였다. 주관적 규범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해 개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개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지할 것이라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8로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6이었다.

3)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를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상담 의도 척도(ISC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Cash 등(1975)에 의하여 처음 개발되었는데, 대학생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종류(예, 전반적 불안이나 긴장감, 알코올 문제 등) 15가지를 나열하고 이에 대해 6점 리커르트 점수로 답하는 척도였다. 이 척도를 Robertson과 Fitzgerald(1992)가 수정하여 오늘날 사용되는 상담 의도 척도로 구성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연희와 안현의(2005)가 이를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형식으로 답하게 되어있으며, 문제의 목록을 나열하고 그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려 할 의도의 정도를 물었다. 1점 ‘절대 아니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상담 의도 척도를 사용한 국내 연구들 중 요인분석을 통해 3-4개의 하위요인을 구한 결과들도 있었지만(이민지, 손은정, 2007; 염혜연, 2013; 김지숙, 2016), 이러한 결과들은 구조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래의 척도에서는 단일요인의 척도로 개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전체 척도를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연희와 안현의(2005)의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었다.

4)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호감도 및 유사성

Hammer와 Vogel(2013)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형의 호감도를 측정할 때,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추린 많은 원형 형용사들(예, “스트레스를 받은,” “불안해하는”) 중 가장 높은 관련이 있다는 평점을 받은 상위 10개의 형용사들을 추려 원형 연구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형용사들은 부정적인 형용사에 편중되어 있어, 긍정적인 형용사를 연구에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 선행연구도 있었다(전미선, 신희천, 2016).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왕윤정과 서영석(2015)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방법을 혼합한 원형 조사 방법을 통해 추려놓은 36개의 원형 형용사 중에 관련성 평정 점수가 높은 형용사들 중, 긍정적인 형용사와 부정적인 형용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게 고려하여 선정한 16개의 형용사들을 사용하였다.

왕윤정과 서영석(2015)의 연구에서는 체계적 위계분석을 통해 원형들

을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고 9개의 군집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임의적으로 붙인 군집 이름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평정한 원형 형용사들이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 16개의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내적 갈등이 많은,’ ‘마음이 힘든,’ ‘스트레스가 심한,’ ‘힘든 문제가 있는,’ ‘생각이 많은,’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용기가 있는,’ ‘적극적인,’ 의 형용사들이 측정에 사용되었다.

먼저 “잠시 시간을 내어 머리 속에 <상담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머리 속에 어떤 종류,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생각나는지 떠올려봅시다.” 라는 안내문을 통해 상담 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 뒤, 16개의 형용사를 제시하며 이 형용사들이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임을 안내하고, 각 형용사에 대해 원형 호감도의 경우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지를 물었으며, 원형 유사성의 경우 얼마나 자신과 유사 혹은 유사하지 않다고 느끼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7점 리커트 척도에서 측정되었으며, 호감도의 경우는 1점 ‘부정적이다’에서 7점 ‘긍정적이다’로 측정하였고, 유사성의 경우 1점 ‘나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 7점 ‘나와 매우 유사하다’로 측정하였다. 이는 다른 원형 연구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이며(Hyde & White, 2009; Gerrard 등, 2005, Blanton 등, 2001),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 원형에 대해 긍정적 혹은 자신과 유사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상담 원형에 대해 부정적 혹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형 호감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신뢰도는 .89-.92 정도로 나타났으며, 원형 유사성에 대한 신뢰도는 .88 정도로 나타났다(전미선, 신희천, 2016; Hammer & Vogel, 2013). 본 연구에서 원형 호감도의 신뢰도

는 .85였으며, 원형 유사성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5) 의향

의향 측정의 경우, 가상의 상황 시나리오를 주어 이러한 행동촉진적 상황에 처했을 때 해당 행동을 얼마나 하려는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지이다. 때문에 원형-의향 모형을 이용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는 각기 다른 행동들을 측정하기 위해 의향 척도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왔다 (Blanton 등, 2002; Gerrard 등, 2005; Hyde & White, 2009).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는 의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으며, 의향을 측정하는 척도 역시 개발된 적이 없다. 때문에 상담 받고자 하는 의향에 대해서는, 원형-의향 모형의 창시자들인 Gibbons, Gerrard와 Lane(2003)이 제시한 측정 문항을 만들 때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Hammer와 Vogel(2013)이 상담 상황에 맞춰 만든 시나리오 형식의 의향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번역 작업을 거친 후에, 이중언어자 상담전공 석사수료생이 역번역 한 문항들을 해외 거주 10년 이상의 이중언어자 상담 전공 박사생 2인에게 검수와 확인을 받아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최종 완성된 문항의 예시로는 “당신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학내 상담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한 상담실에 ‘마음건강 검진의 날’이라고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상담가들이 즉석에서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심리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수업에 가기 전까지 아직 두 시간이 남아있어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a) 안내 데스크에 가서 심리 검사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b) 얼마나 이 검사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가 있으며, 총 4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점수는 7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의향이 없다, 7점 - 매우 그럴 의향이 있다)로 측정하며, 점수의

합산으로 의향을 평가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의향이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61로 나타났다.

6) 행동

Hammer와 Vogel(2013)은 연구에서 출판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 척도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는데, 국내에서의 연구들 또한 직접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측정하는 논문을 찾을 수 없었다. 대다수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태도(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단축형 척도, ATSPPH-SF; Fischer & Farina, 1995)와 의도(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척도, ISCI; Cash, Bagley, McCown & Weise, 1975)를 행동을 대신하는 종속변인으로써 측정하였다(김동민 & 양대희, 2010; 김수현, 2009; 김주미 & 유성경, 2002; 신연희 & 안현의, 2005; 이미숙, 2013; 이지연, 강지연 & 이인숙, 2008; 조영아, 2009; 등). 태도와 의도가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인데, 이는 합리적 행동 이론에 기반하는 것으로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 벗어난 원형-의향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의식적인 경로인 태도와 의도가 아닌 사회반응적 경로인 원형, 의향의 영향력을 보려는 본 연구에서는 도움추구 의도 척도와 태도 척도를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좀 더 직접적인 도움추구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접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행동에 최대한 유사한 행동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향 척도와 마찬가지로 행동 척도도 같은 절차의 번역-역번역-검수 과정을 거쳐 문항들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 상담 센터 사이트로 연결하시겠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며, ‘예’의 개수를 합산하여 총 0에서 4점의 점수로 행동을 측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선행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는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행동 척도의 경우 최대한 실제 행동에 가까운 질문을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지다 보니 “대학 상담 센터에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겠습니까? 상담 센터는 비밀을 보장하며, 무료입니다.”와 같은 질문들은 긍정적으로 응답할 시에 바로 상담 예약이 이루어진다고 오해 할 소지가 있었다. 어디까지나 질문은 행동을 측정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상담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상담 예약을 잡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 척도를 완료한 후 디브리핑 페이지를 만들었다. 디브리핑 단계에서 참여자들에게 이전의 질문들은 설문 위한 질문이었으며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안내하였고, 추가적인 상담 정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학내/학외 상담센터의 소개, 위치, 전화번호와 특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4. 자료분석

위 척도들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코딩 과정을 거친 후,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4.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회귀분석을 위한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등을 기술통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인들 간에 상

관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였으며,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과 같은 방향의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구성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그리고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넷째, 구조모형 검증과 간접효과 확인을 통해 주요변인들이 이론대로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다른 경쟁모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구성된 모형이 다른 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IV. 결과

1. 기술통계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스트레스, 원형 호감도, 원형 유사성, 의향, 행동에 대한 가능한 점수범위와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등을 제시하였고, 측정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Kline(2005)에 따르면, 왜도 절대값 3 이상, 첨도 절대값 10 이상이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아래의 표에서처럼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변인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가능한 점수범위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원형 호감도	1-7	1.00	6.13	4.52	.78	-.34	1.29
원형 유사성	1-7	1.00	5.94	4.47	.70	-.60	2.21
태도	1-4	1.00	3.70	2.66	.48	-.43	.28
주관적 규범	1-6	1.00	6.00	4.19	.89	-.23	-.05
의도	1-4	1.00	3.71	2.56	.51	-.39	.15
의향	1-7	1.00	7.00	4.94	1.02	-.52	.82
행동	1-7	.00	1.00	.26	.34	1.12	-.09

2.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변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후에, 각 변인들이 서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원형 호감도	원형 유사성	태도	주관적 규준	의도	의향
원형 유사성	.32**					
태도	.14*	.07				
주관적 규준	.14*	.03	.36**			
의도	.26**	.25**	.37**	.13*		
의향	.27**	.36**	.34**	.23**	.37**	
행동	.19**	.20**	.20**	.13*	.22**	.32**

* $p<.05$, ** $p<.01$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인들 간에는 대체로 선행연구와 이론을 기반으로 기대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행동에는 원형 호감도, 원형 유사성, 태도, 주관적 규준, 의도, 의향이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19$, $r=.20$, $r=.20$, $r=.13$, $r=.22$, $r=.32$), 주관적 규준($p<.05$)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의수준이 0.01 이하로 나타났다. 의향 역시 원형 호감도, 원형 유사성, 태도, 주관적 규준, 의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7$, $r=.36$, $r=.34$, $r=.23$, $r=.37$), 유의수준 역시 모두 0.01 이하로 나타났다. 의도의 경우 원형 호감도($r=.26$, $p<.01$), 원형 유사성($r=.25$,

$p<.01$), 태도($r=.37$, $p<.01$), 주관적 기준($r=.13$, $p<.05$)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기준의 경우 원형 호감도($r=.14$, $p<.05$)와 태도($r=.36$,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원형 유사성($r=.03$, $p>.05$)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태도는 원형 호감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4$, $p<.05$), 원형 유사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7$, $p>.05$). 마지막으로 원형 호감도와 원형 유사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2$, $p<.01$).

상관관계가 나타난 변인들을 대상으로 인과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이성적인 경로를 구성하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이론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태도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2.553$, $p<.05$), 예상과는 다르게 주관적 규범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993$, $p=.322$). 태도는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5.572$, $p<.001$), 주관적 규범은 예상과는 다르게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025$, $p=.980$). 의도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441$, $p<.01$).

<표 4> 이성적인 경로의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표준화 베타	t	유의확률	공차	VIF
태도 → 행동	.126	.049	.179	2.553*	.011	.873	1.146
주관적 규범 → 행동	.027	.027	.070	.993	.322	.873	1.146
태도 → 의도	.393	.071	.371	5.572**	.000	.873	1.146
주관적 규범 → 의도	-.001	.038	-.002	-.025	.980	.873	1.146
의도 → 행동	.149	.043	.224	3.441**	.001		

* $p<.05$, ** $p<.01$

다음으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휴리스틱적인 경로를 구성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5>를 보면, 예상과는 다르게 원형 호감도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t=1.964$, $p=.051$), 반면에 원형 유사성은 예상했던 대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02$, $p<.05$). 다음으로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선행연구와 이론에서 기대된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원형 호감도는 예측한대로 의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1.982$, $p=.049$), 원형 유사성 역시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4.924$, $p<.001$). 태도 역시 의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지만($t=4.232$, $p<.001$), 주관적 규범은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달리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1.776$, $p=.077$). 의향은 행동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t=5.074$, $p<.001$).

<표 5> 휴리스틱적인 경로의 회귀분석 결과

	B	표준오차	표준화 베타	t	유의확률	공차	VIF
원형 호감도 → 행동	.059	.030	.135	1.964	.051	.897	1.115
원형 유사성 → 행동	.077	.034	.158	2.302*	.022	.897	1.115
원형 호감도 → 의향	.162	.082	.123	1.982*	.049	.874	1.144
원형 유사성 → 의향	.444	.090	.301	4.924**	.000	.896	1.117
태도 → 의향	.561	.133	.264	4.232**	.000	.863	1.158
주관적 규범 → 의향	.128	.072	.111	1.776	.077	.864	1.157
의향 → 행동	.106	.021	.321	5.074**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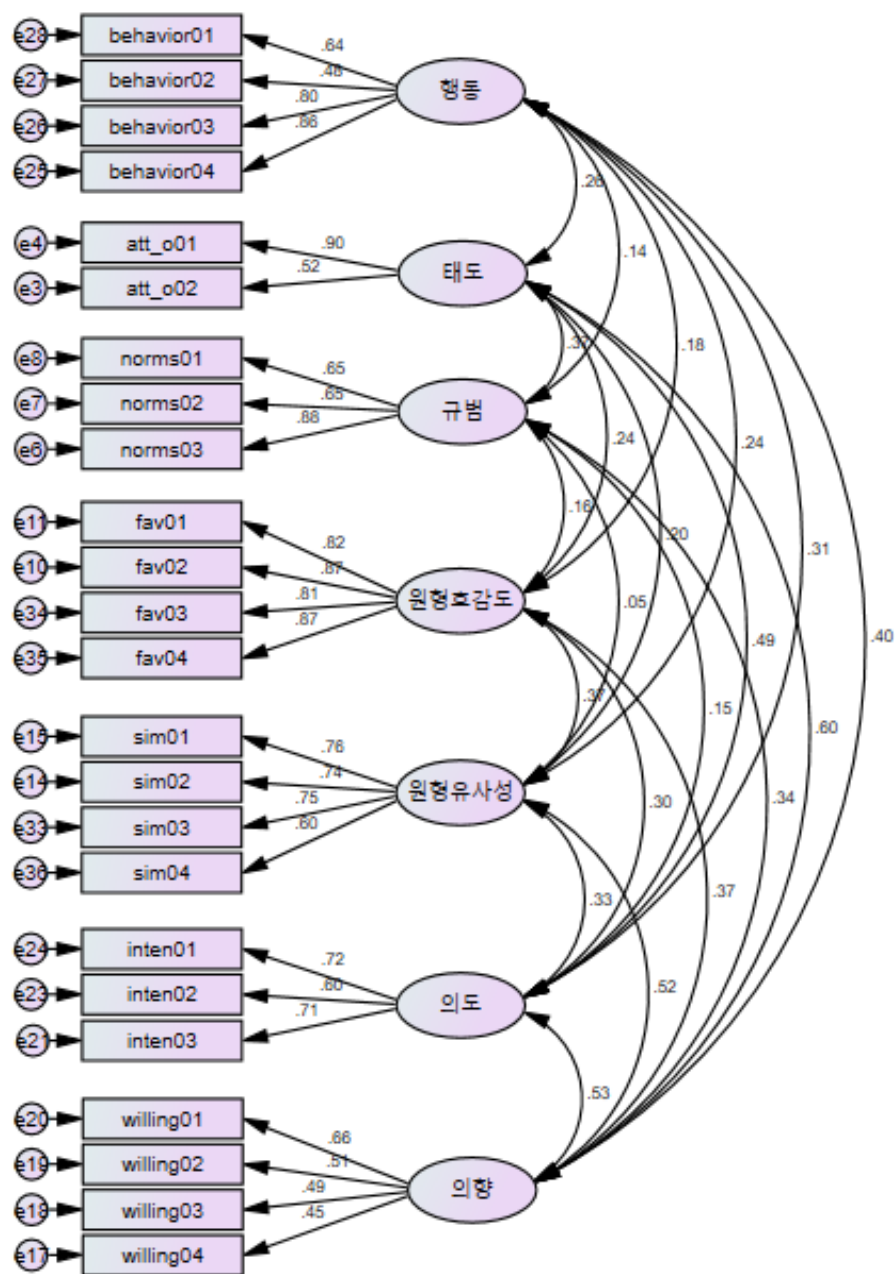
* $p<.05$, ** $p<.01$

3. 측정모형 검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경우, 선행연구들을 통해 2요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2요인 구조를 따라 하위요인을 2개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태도 외의 다른 척도들(의도, 원형 호감도, 원형 유사성, 주관적 규범, 의향, 행동)은 모두 선행연구에서 특별히 하위요인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단일차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각 척도들을 1요인으로 보고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구성개념에 대한 설문항목이 많은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모델의 주요 적합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항묶음(item-parcel)을 사용하였다(조현철 & 강석후, 2007). 문항을 묶을 경우, 비교적 연속적이고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전박적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agozzi & Heatherton, 1994). 이러한 문항묶음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 중 요인적재량에 따라 묶음을 만들어내는 Factorial Algorithm 방식을 사용하여 문항묶음을 생성하였다(Matsunaga, 2008; Orcan, 2013). 이는 요인부하량을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열한 뒤, 각 묶음에 부하가 높은 문항과 부하가 낮은 문항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정하는 방식이다. 각 변인의 측정변수들은 계산(identification)을 위해 각 3-4개로 설정하였다(라수현, 2009).

위의 과정들을 거쳐 구성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모수 추정 방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대 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값, Goodness of fit index(GFI),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값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GFI, TLI, CFI는 0.9 이상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RMSEA의 경우 0.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08 이하이면 적합도가 적절한 모형, 0.10 이상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형으로 판단된다(Browne &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p)$	CMIN/df	TLI	CFI	RMSEA
339.019(.000)	1.468	.932	.943	.046

적합도 검증 결과 카이제곱 검정에는 χ^2 는 339.019, $p=.00$ 으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나, 카이제곱 검정은 표본크기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송지준, 2009).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였을 때, 카이제곱 값을 자유도로 나눈 CMIN/df는 1.468로 나타났으며, 2보다 낮은 이 수치는 모형이 적합함을 나타낸다. TLI와 CFI는 각각 .932와 .943으로 기준선인 .90을 넘기 때문에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RMSEA 역시 .046(90% 신뢰구간 [CI] = .035, .056)으로 적절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 7>에 제시하였다. 모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으로, 유의한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

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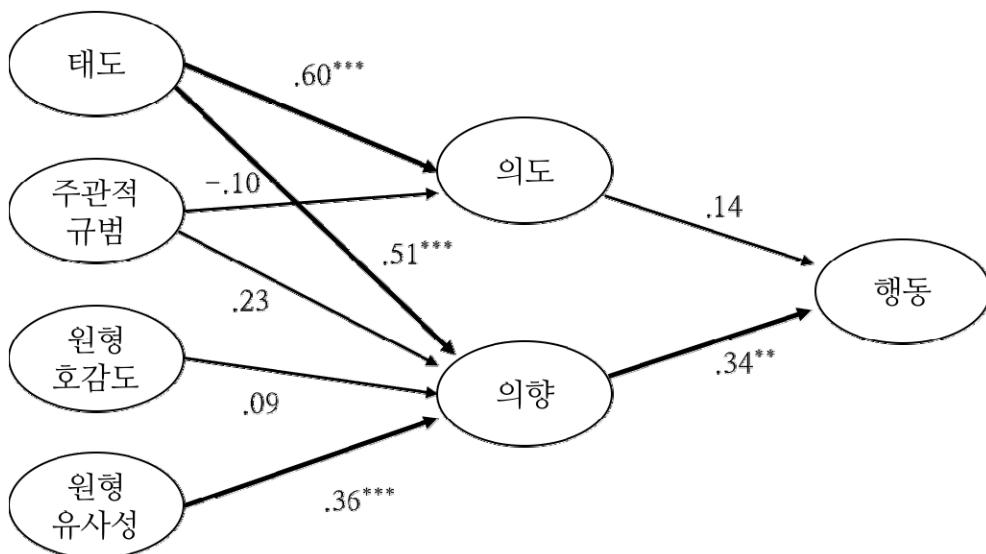
<표 7>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

	요인		요인부하량
태도01	⇒	태도	.904
태도02	⇒	태도	.521
규범01	⇒	규범	.646
규범02	⇒	규범	.649
규범03	⇒	규범	.882
원형호감도01	⇒	원형호감도	.819
원형호감도02	⇒	원형호감도	.872
원형호감도03	⇒	원형호감도	.814
원형호감도04	⇒	원형호감도	.874
원형유사성01	⇒	원형유사성	.755
원형유사성02	⇒	원형유사성	.742
원형유사성03	⇒	원형유사성	.748
원형유사성04	⇒	원형유사성	.599
의향01	⇒	의향	.663
의향02	⇒	의향	.515
의향03	⇒	의향	.489
의향04	⇒	의향	.445
의도01	⇒	의도	.724
의도02	⇒	의도	.601
의도03	⇒	의도	.712
행동01	⇒	행동	.639
행동02	⇒	행동	.482
행동03	⇒	행동	.803
행동04	⇒	행동	.860

4. 구조모형 검증

(1) 구조모형 검증 및 간접효과 확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다차원적인 변인들의 구조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획적 행동이론의 변인들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의도가 매개하며, 원형-의향 모형의 변인들인 원형호감도와 원형유사성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의향이 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적합도의 기준은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 $p < .001$, ** $p < .01$

[그림 5] 구조모형 검증 결과

<표 8> 제안모형 검증 결과

경로	계수값	표준화 경로계수	C.R.
태도 ⇒ 의도	.588	.604***	4.725
규범 ⇒ 의도	-.051	-.101	-1.043
태도 ⇒ 의향	.744	.514***	3.620
규범 ⇒ 의향	.066	.089	.962
원형 호감도 ⇒ 의향	.094	.086	1.034
원형 유사성 ⇒ 의향	.400	.363***	3.438
의향 ⇒ 행동	.176	.340**	3.178
의도 ⇒ 행동	.108	.141	1.545
모형적합도	$\chi^2(p) = 353.193(.00)$, CMIN/df = 1.484, TLI = .930, CFI = .939, RMSEA = .046		

***p<.001, ** p<.01

제안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제안모델은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chi^2(p) = 353.193(.00)$, CMIN/df = 1.484, TLI = .930, CFI = .939, RMSEA = .046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태도의 경우 예상대로 의도($\gamma=.604$, $p<.001$)와 의향($\gamma=.514$,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와 의향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반면에 주관적 규범은 예상과는 달리 의도($\gamma=-.101$, $p=.297$)와 의향($\gamma=.089$, $p=.33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형 호감도의 경우 이론과는 달리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gamma=.086$, $p=.301$), 원형 유사성은 의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363$, $p<.001$). 이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는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지만,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상담을 받으려

는 의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향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eta=.340$, $p=.001$), 반면 행동에 대한 의도의 영향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eta=.141$, $p=.122$).

다음으로, 매개효과가 구조 모형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행동에 대한 태도의 간접효과는 계수값 .195, $p=.004$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에의 규범의 간접효과는 계수값 .006, $p=.951$ 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에 대한 원형 유사성의 간접효과의 계수값은 .070 였으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p=.008$ 로 나타나 간접효과의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원형호감도의 간접효과의 계수값은 .017, $p=.419$ 로 나타나 원형호감도의 행동에 대한 영향을 의향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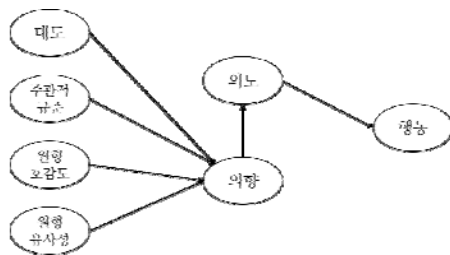
(2) 경쟁모형 비교

Martens(2005)에 따르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의 모형만 검증해보는 것은 자료를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으면서도 이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모형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모형의 비교와 최종 선택시,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더 나은 모형을 판별할 수 있다. 만일 모형 간에 적합도의 차이가 없는 경우, 더 간결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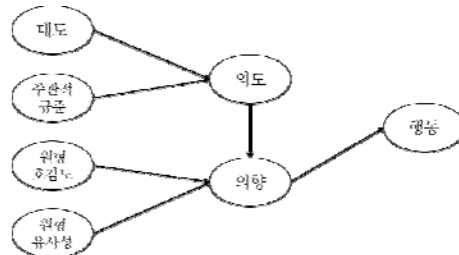
현 연구에서는 의도와 의향이 동시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나, 의향과 의도가 순서를 가지고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Hammer & Vogel, 2013), 의향과 의도가 각각 우선이 되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모형을 검증하였다. [그림 6]에 제시되어 있는

경쟁모형1은 의향을 우선으로 의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고 의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향이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고 대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는 경쟁모형2는 의도를 우선으로 의향을 매개로 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의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고 의도를 통한 간접 영향만을 받도록 설정하였으며, 의도가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거하고 의향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림 6] 경쟁모형1



[그림 7] 경쟁모형2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p)	$\Delta\chi^2$	CMIN/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339.019	238(.000)		1.468	.932	.943	.046
경쟁모형1	355.252	240(.000)	16.233	1.476	.931	.940	.046
경쟁모형2	371.925	240(.000)	32.906	1.550	.920	.931	.049

각 모형들에 대한 모형적합도와 χ^2 값의 차이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먼저, 경쟁모형1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chi^2(p) = 355.252(.00)$, CMIN/df = 1.476, TLI = .931, CFI = .940, RMSEA = .046으로 나타나,

경쟁모형1은 대체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1과의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값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Delta\chi^2(2)=16.233$, $p<.01$). 즉 연구모형은 경쟁모형1보다 나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경쟁모형2의 경우 모형 적합도가 $\chi^2(p) = 371.925(.00)$, $\text{CMIN/df} = 1.550$, $\text{TLI} = .920$, $\text{CFI} = .931$, $\text{RMSEA} = .049$ 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카이제곱값을 비교하였으며, 연구모형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Delta\chi^2(2)=32.906$, $p<.01$). 연구모형은 경쟁모형2보다 자료를 더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최종모형으로 연구모형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1. 결과 요약

상담을 받으려는 의사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는 과연 이성적인 경로와 휴리스틱적 경로가 둘 다 영향을 미칠까? 원형과 의향은 상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일부 결과들은 가설을 지지하였고, 다른 일부의 결과들은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첫째로, 상담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일부 지지되었다. 상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관적 규범의 경우 상담을 받으려는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가정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둘째로, 상담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원형은 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역시 일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 역시 높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규범은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담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원형이 긍정적일수록 의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원형 호감도가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형 유사성은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 유사성이 높을수록 의향 역시 높게 나타났

다.

셋째로, 의도와 의향, 원형은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일부만 지지되었다. 이성적인 경로인 의도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리스틱 경로인 의향의 경우,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향이 높을수록 행동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형 호감도와 원형 유사성의 경우 의향을 매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원형 유사성만이 의향을 매개로 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및 제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몇 가지의 논의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의도가 아닌 의향만이 유의한 예측을 한 점이다.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도움추구 행동에 ‘이성적인 접근 경로,’ 즉 의도와 태도로 대표되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영향력만을 고려한 경우가 많았으며, 때문에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척도 대신에 의도나 태도 척도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신연희 & 안현의, 2005; 김주미 & 유성경, 2002; 조영아, 2009; 김동민 & 양대회, 2010; 김수현, 2009; 이지연, 강지연, & 이인숙, 2008; 이미숙, 2013).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이중처리이론에서 말하는 행동에 대한 두 가지 경로 중 이성적인 경로만을 고려한 방식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이성적인 경로 뿐만이 아니라 휴리스틱 경로 역시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예상대로 의향이 도움추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적이고 의지적인 개념을 내포

하고 있는 의도와는 구별되는, 반응적이고 무의식적인 개념인 의향 역시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의향 척도 문항들을 살펴보면 우연한 기회에 상담 워크샵에 참여하게 되거나 지도교수가 상담을 권유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상황이 가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담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본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상담에 대한 의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표집한 표본의 특징 일수도 있고,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상담을 받는 행위’가 아닌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의도는 행동에 대해 유의한 예측에 실패한 반면 의향은 유의하게 행동을 예측하였다. 이는 원형-의향 모형이 흔히 적용되는 건강 위협 행동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 상담을 휴리스틱적 접근 경로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담이라는 행동의 특성상, 마음을 먹거나 필요가 있더라도 실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만큼 행동을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기에 많은 연구들에서 행동을 측정하는 대신 의도나 태도를 측정할 만큼 전문적 도움추구 영역에서의 이성적인 접근 경로에 대한 신뢰는 두터웠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이성적인 접근 경로뿐만 아니라 휴리스틱적인 접근 경로를 고려해봐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아직 사람들이 어떻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결정하는데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휴리스틱적인 접근을 연구하는 것은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로, 원형 호감도와 원형 유사성 중 원형 유사성만이 행동에 미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형-의향 이론(Gerrard 등, 2008)에 따르면 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원형을 언급하며,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과는 다르게 의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변인이라는 것을 밝힌다(Todd 등, 2016). 상담에 원형/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한 선행연구에서는 원형의 하위요인 중 원형 호감도의 영향력만을 확인하였는데(Hammer & Vogel, 2013), 본 연구에서는 다른 건강 위험 행동과는 다른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형 호감도 뿐만 아니라 원형 유사성의 영향력을 함께 검증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받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호감도 외의 다른 차원에서도 살펴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보통 원형-의향 모형을 적용한 논문들에서는 원형 호감도가 의향을 매개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lanton 등, 2001; Gerrard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원형 호감도가 의향과 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형 유사성은 의향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입증하였으며, 의향을 통한 행동에의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비록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원형 호감도가 의향과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방향성은 발견되었기에,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충분한 표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상담의 원형과 의향을 살펴본 다른 논문에서는 의향에 대한 원형 호감도의 유의한 예측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전미선, 신희천, 2016). 하지만 또 다른 대안 설명으로는 ‘상담받는 사람’이라는 원형이 갖는 이미지의 특수성 때문일 수 있다. 도움추구 행동에 원형-의향 모형을 적용시킨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도 또한 예측과는 달리 원형 호감도가 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원형 척도 구성시에 대부분의 척도의 내용인 형용사들이 부정적이었고(예, 스트레스가 많은, 문제가 있는, 우울한 등), 질문 자체가 ‘상담받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나열된 형용사들이 얼마나 상담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가

까운가'하는 형식으로 물어본 뒤 코딩을 할 때에 역채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형용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형용사를 포함한 원형 목록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원형 호감도의 척도 역시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로 묻고 '호감이 전혀 가지 않음'부터 '호감이 매우 감'의 형식으로 답하게 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질문 자체에서 혼란을 느꼈을 가능성은 적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는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원형 유사성은 의향과 행동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 원형 유사성이 증가할수록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상담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미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이 증가함을 뜻한다. 즉, 상담 받는 사람들의 이미지의 호감도와는 별개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면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움추구 행동의 경우, 원형 호감도보다 원형 유사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확장시켜보면, 상담 추천자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끼면 상담을 권유하는 설득 메시지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지더라도 상담을 받고자 하는 태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았던 김계현과 문수정(2012)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음주나 흡연과 같은 건강 위험 행동들은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매력적인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인 반면, 상담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렵고 망설여지는 종류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행동 자체의 특성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장기기증에 원형-의향 모형을 적용한 Hyde와 White(2009)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원

형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장기기증을 결심하게 되는 의향이 증가했지만, 원형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기기증 역시 다른 건강 위험 행동들과는 다르게 선뜻 행동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의 특성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원형 호감도보다는 원형 유사성이 의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원형 유사성이 의향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담을 홍보할 때의 홍보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상담에 대한 이미지, 혹은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잠재적 내담자들에게 상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과 비슷한지를 강조하여 상담을 홍보할 수 있다. 여전히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상담을 받으면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으며, 이는 상담으로 가는 발걸음을 막는 주요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이민지, 손은정, 2007). 이러한 생각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렇기에 자신은 상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상담 홍보 장면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당신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고 당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해주어 잠재적 내담자들이 자신과 상담받는 사람들이 유사하다고 느낀다면, 이는 곧 상담을 받으려는 의향과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원형 유사성이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의향이 매개한다는 것은 상담받는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더라도 상담에 노출될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그동안 많은 상담센터들이 해 온 여러가지 워크숍,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 해석 진행,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진행 등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Todd 등(2014)에 따르면 원형이 의도에 0.5%의 설명력을 가질 때, 의향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10.5% 정도였다. 이는 다시 말하면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혹은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좋은 이미지가 해당 행동을 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을 세울 가능성을 높여 주지는 않음을 뜻한다. 하지만 긍정적 혹은 유사한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촉진하는 환경에 처하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도움추구 행동의 경우, 상담받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의 필요성을 느낀 내담자라 할 지라도 당장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는 결심을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보게되거나 주변인이 상담을 권유하는 등의 상담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받는 사람들이 당신과 비슷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홍보와 더불어 상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이는 좀 더 많은 잠재적 내담자들이 망설임을 넘어 상담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함의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보안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연구 대상이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으로 한정적이었기에 이전에 상담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아동 및 중고생, 직장인 등 모든 잠재적 내담자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담 원형에 대한 형용사 목록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인구를 포괄하는 원형 목록이 먼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실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형의 의향과 행동에의 인과적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원형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유사하거나 혹은 유사하지 않게 조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에 따르는 의향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효과적인 홍보에 대한 선명한 함의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는 드물게 이뤄지던 도움추구 행동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과 휴리스틱적 접근을 동시에 확인했다는 점과 상담 받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상담을 받는 의향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동민, 양대회.(2010).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미치는 자기은폐성향의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95-108.
- 김수현(2009). 전문적도움 추구 행동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사회과학연구**, 26(2), 89-138.
- 김주미, 유성경(2002).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 - 1002.
- 남숙경.(2010). 상담일반: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구인타당도 재점검. **상담학연구**, 11(3), 1007-1020.
- 남숙경, 이상민(20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집단간 차이 분석: 대상, 성별, 연령,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341-366.
- 라수현, 수면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경험적 회피 및 걱정이 불면증에 미치는 영향: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문수정, 김계현(2012). 추천자의 유사성에 따른 상담에 대한 태도형성과정 비교분석. **상담학연구**, 13(5), 2067 - 2084.
- 박준호, 서영석(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2006).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06**.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한눈에 보는 OECD 보건 지표 2011**. 서울: 보건복지부.
- 신연희, 안현의.(2005).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 상대적 중요성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7(1), 177 - 195.
- 신예지, 김계현(2013). 상담효과 및 이용편의에 관한 후기가 잠재적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3(9), 1689 - 1699.
- 송지준(2009). **논문 작성에 필요한 SPSS, 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염혜연.(2013). **청소년의 사이버 상담경험 유무 및 성과가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대학교.
- 왕윤정.(2014).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왕윤정, 서영석.(2015). 대학생이 인식하는 상담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773 - 796.
- 유영란, 이지연(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이미숙(2013). 상담추구태도와 통제소재가 도움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5), 1-24.
- 이민지, 손은정.(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의도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19(4), 949 - 966.
- 이지연, 강지연, 이인숙.(2008).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에 있어 수치심과 낙인의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1), 23-47.
- 장영임(1999). **문제의 심각도및 사회적지지,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상담요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전미선, 신희천(2016). 원형과 행동 경향성을 통한 전문적인 도움추구 의사결정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103-1124.

- 조영아(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현철, 강석후(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묵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17(3), 133-153.
- 최희철(2009).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상담추구 의도 예측 모형*.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control*. Heidelberg: Springer.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2010). Constructing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questionnaire. Retrieved 13.06.16.
- Akutsu, P. D., Snowden, L. R., & Organista, K. C.(1996). Referral patterns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56.
-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 analytic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Andrews, G., Issakidis, C., & Cater, G.(2001). Shortfall in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5), 417-425.
- Bagozzi, R. P., & Heatherton, T. F.(1994). A general approach to representing multifaceted personality constructs: Application to state self este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1), 35-67.
- Bayer, J. K., & Peay, M. Y.(1997). Predicting interactions to seek help

- from professional mental health services. *Australians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1, 504-513.
- Blanton, H., Van Den Eijnden, R. J. J. M., Buunk, B. P., Gibbons, F. X., Gerrard, M., & Bakker, A. B.(2001). Accentuate the Negative: Social Images in the Prediction and Promotion of Condom Us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2), 274 - 295.
- Bosmaïjan, C. P., & Mattson, R. E.(1980). A controlled study of variables related to counseling center u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510.
- Brown,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54, 136-162.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ash, T. F., Begley, P. J., McCown, D. A., & Weise, B. C.(1975). When counselors are heard but not seen: Initial impa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4), 273.
- Chaiken, S.(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5), 752 - 766.
- Chaiken, S., & Trope, Y.(Eds.).(1999).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Colman, A. M.(2015). *A dictionary of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nner, M., Godin, G., Sheeran, P., & Germain, M.(2013). Some feelings are more important: Cognitive attitudes, affective attitudes, anticipated affect, and blood donation. *Health Psychology*, 32(3), 264.

- Corrigan, P.(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 - 625.
- Cramer, K. M.(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81 - 387.
- Deane, F. P., & Todd, D. M.(1996). Attitudes and intentions to seek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for personal problems or suicidal think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0(4), 45-59.
- Fehr, B.(1988). Prototyp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love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557 - 579.
- Fischer, E. H., & Farina, A.(1995).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6, 368-373.
- Fischer, E. H., & Turner, J. L.(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reud, S.(1922). The unconsciou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56(3), 291-294.
- Gerrard, M., Gibbons, F. X., Houlihan, A. E., Stock, M. L., & Pomery, E. A.(2008). A dual-process approach to health risk decision making: The prototype willingness model. *Developmental Review*, 28(1), 29 - 61.
- Gerrard, M., Gibbons, F. X., Reis-Bergan, M., Trudeau, L., Vande

- Lune, L. S., & Buunk, B.(2002). Inhibitory effects of drinker and nondrinker prototypes on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Health Psychology : Official Journal of the Division of Health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1(6), 601 - 609.
- Gerrard, M., Gibbons, F. X., Stock, M. L., Vande Lune, L. S., & Cleveland, M. J.(2005). Images of smokers and willingness to smoke among African American pre-adolescents: An application of the prototype/willingness model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r to smoking initia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0(4), 305 - 318.
- Gibbons, F. X., & Gerrard, M.(1995). Predicting young adults' health risk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505 - 517.
- Gibbons, F. X., Gerrard, M., Blanton, H., & Russell, D. W.(1998). Reasoned action and social reaction: willingness and intention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health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164 - 1180.
- Gibbons, F. X., Gerrard, M., Lando, H. A., & McGovern, P. G.(1991). Social comparison and smoking cessation: The role of the "typical smok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3), 239 - 258.
- Gibbons, F. X., Gerrard, M., & Lane, D. J.(2003). A social reaction model of adolescent health risk. In J. M. Suls & K. A. Wallston(Eds.),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health and illness*(pp.107-136), Oxford, Englad: Blackwell.
- Gibbons, F. X., Gerrard, M., Reimer, R., & Pomery, E. A.(2006). Health decision-making: Reasoned vs. reactive responding. In J. de Wit & D. de Ridder(eds.), *Self-regulation in health*

- behaviour*(pp.45–70). Sussex, UK: Wiley.
- Greenley, J. R., & Mechanic, D.(1976). Social selection in seeking help for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7, 249–262.
- Gross, A. E., & McMullen, P. A.(1983). Models of the help-seeking process. *New directions in helping*, 2, 45–61.
- Hammer, J. H., & Vogel, D. L.(2013). Assessing the Utility of the Willingness/Prototype Model in Predicting Help-Seeking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83 - 97.
- Hofmann, W., Gschwendner, T., Friese, M., Wiers, R. W., & Schmitt, M.(2008). Working memory capacity and self-regulatory behavior: toward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on behavior determination by automatic versus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4), 962.
- Horowitz, L. M., French, R. S., & Anderson, C. A.(1982). The prototype of a lonely person. In L.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83 - 205). New York: Wiley.
- Hyde, M. K., & White, K. M.(2009). Similarity not favorability: the role of donor prototypes in predicting willingness to donate organs while living.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7), 888 - 98.
- Kline, R. B.(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Kushner, M. G., & Sher, K. J.(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

- Martens, M. P.(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3), 269-298.
- Matsunaga, M.(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Omizo, M. M., Kim, B. S., & Abel, N. R.(2008). Asian and European American cultural values, bicultural competence,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1), 15-28.
- Olfson, M., & Marcus, S. C.(2010). National trends in outpatient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7(12), 1456-1463.
- Orcan, F.(2013). *Use of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issing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L.
- Ouellette, J. A., Hessling, R., Gibbons, F. X., Reis-Bergan, M., & Gerrard, M.(2005). Using images to increase exercise behavior: Prototypes versus possible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5), 610-620.
- Petty, R. E., & Cacioppo, J. T.(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3 - 205.
- Pomery, E. A., Gibbons, F. X., Reis-Bergan, M., & Gerrard, M.(2009). From willingness to intention: Experience moderates the shift from reactive to reasoned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7), 894-908.
- Rivis, A., & Sheeran, P.(2003). Social influences and the Theory of

- Planned Behaviour: evidence for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prototypes and young people's exercise behaviour. *Psychology & Health*, 18(5), 567 - 583.
- Rivis, A., Sheeran, P., & Armitage, C. J.(2006). Augmen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with the prototype/willingness model: predictive validity of actor versus abstainer prototypes for adolescents' health-protective and health-risk intention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3), 483 - 500.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9(4), 563 - 572.
- Robertson, J. M., & Fitzgerald, L. F.(1992). Overcoming the masculine mystique: Preferences for alternative forms of assistance among men who avoi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2), 240.
- Rosch, E. H.(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 - 350.
- Sheeran, P.(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Sheeran, P., Gollwitzer, P. M., & Bargh, J. a.(2013). Nonconscious processes and health. *Health Psychology*, 32(5), 460.
- Skowronski, J. J., & Carlston, D. E.(1989). Negativity and extremity biases in impression formation: A review of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5, 131 - 142.
- Sniehotta, F. F., Pesseau, J., & Araújo-Soares, V.(2014). Time to retire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Health Psychology Review*, 8(1), 1 - 7.

- Snortum, J., Kremer, L., & Berger, D.(1987). Alcoholic beverage preference as a public statement: Self-concept and social image of college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243 - 251.
- Stevens, J. P.(201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Routledge.
- Todd, J., Kothe, E., Mullan, B., & Monds, L.(2016). Reasoned versus reactive prediction of behaviour: a meta-analysis of the prototype willingness model. *Health Psychology Review*, 10(1), 1 - 24.
- Vogel, D. L., Wade, N. G., & Haake, S.(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25.
- Vogel, D. L., & Wester, S. R.(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 - 361.
- Wampold, B. E.(2000). Outcomes of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In S. D. B. R. W. lent(E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3rd ed.)(pp.711-739).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Webb, T. L., & Sheeran, P.(2006). Does changing behavioral intentions engender behavior change? A meta-analysis of the experimental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32(2), 249 - 268.
- Wilson, C. J., & Deane, F. P.(2005). Measuring help-seeking intentions: Properties of the general help-seeking questionnaire.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39, 15-28.
- Wilson, C. J., Deane, F. P., Marshall, K. L., & Dalley, A.(2008). Reducing adolescents' perceived barriers to treatment and increasing help-seeking intentions: Effects of classroom

presentations by General Practitioners. *Journal Youth and Adolescence*, 37, 1257-1269.

부 록

<부록 1> 원형의 호감도와 유사성	68
<부록 2>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SPPH-SF)	70
<부록 3> 주관적 규범	71
<부록 4>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ISCI)	72
<부록 5> 의향	73
<부록 6> 행동	75

<부록 1> 원형의 호감도와 유사성

잠시 시간을 내어 ‘상담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머릿 속에 어떤 종류,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생각나는지 떠올려봅시다.

- 다음의 16개의 형용사들은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각 형용사들이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혹은 호감이 가지 않는지 표시해주세요.

(1점은 “전혀 호감이 가지 않음”이며 7점은 “매우 호감이 감”입니다.)

	전혀 호감이 가지 않음 <-> 매우 호감이 감						
내적 갈등이 많은	1	2	3	4	5	6	7
마음이 힘든	1	2	3	4	5	6	7
스트레스가 심한	1	2	3	4	5	6	7
힘든 문제가 있는	1	2	3	4	5	6	7
생각이 많은	1	2	3	4	5	6	7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1	2	3	4	5	6	7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1	2	3	4	5	6	7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1	2	3	4	5	6	7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1	2	3	4	5	6	7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	2	3	4	5	6	7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1	2	3	4	5	6	7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1	2	3	4	5	6	7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1	2	3	4	5	6	7
발전가능성이 있는	1	2	3	4	5	6	7
용기가 있는	1	2	3	4	5	6	7
적극적인	1	2	3	4	5	6	7

다시 한 번 ‘상담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머릿 속에 어떤 종류,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생각나는지 떠올려봅시다.

- 다음의 형용사들이 얼마나 자신과 유사하다고 혹은 유사하지 않다고 느껴지는지 표시해주세요.
(1점은 “나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이며 7점은 “나와 매우 유사하다”입니다.)

	나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 <-> 나와 매우 유사하다						
내적 갈등이 많은	1	2	3	4	5	6	7
마음이 힘든	1	2	3	4	5	6	7
스트레스가 심한	1	2	3	4	5	6	7
힘든 문제가 있는	1	2	3	4	5	6	7
생각이 많은	1	2	3	4	5	6	7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1	2	3	4	5	6	7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1	2	3	4	5	6	7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1	2	3	4	5	6	7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1	2	3	4	5	6	7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1	2	3	4	5	6	7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1	2	3	4	5	6	7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1	2	3	4	5	6	7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1	2	3	4	5	6	7
발전가능성이 있는	1	2	3	4	5	6	7
용기가 있는	1	2	3	4	5	6	7
적극적인	1	2	3	4	5	6	7

<부록 2>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ATSPPH-SF)

다음 문항들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에 관한 여러분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만약 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다른 방법보다 전문적 도움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1	2	3	4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의논하는 것은 정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1	2	3	4
만약 내가 현재 내 삶에서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는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갈등이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사람의 태도는 존경할 만 하다	1	2	3	4
만약 내가 오랫동안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면, 상담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볼 것 같다.	1	2	3	4
나는 언젠가는 상담을 받아보기 원할 수도 있겠다.	1	2	3	4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은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상담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1	2	3	4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을 받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1	2	3	4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어려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부록 3> 주관적 규범

당신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요청하는 행동에 대하여,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사람들: 가족, 친한 친구, 이성친구 혹은 배우자, 친척, 선후배, 멘토 등

	절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때 상담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6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6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6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때 상담 받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6

<부록 4>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IS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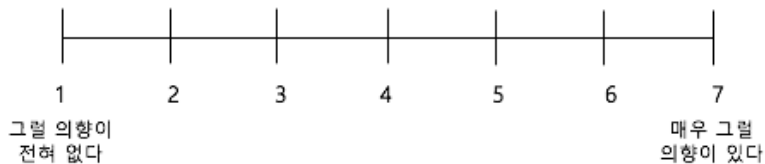
만약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당신이 겪고 있다면, 당신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당신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숫자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목록입니다.*

	절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체중조절	1	2	3	4
과도한 음주	1	2	3	4
대인관계 문제	1	2	3	4
성문제	1	2	3	4
우울증	1	2	3	4
부모님과의 갈등	1	2	3	4
발표 불안	1	2	3	4
이성 문제	1	2	3	4
진로 선택	1	2	3	4
수면 곤란	1	2	3	4
약물복용 문제	1	2	3	4
열등감	1	2	3	4
시험 불안	1	2	3	4
교우관계 문제	1	2	3	4
학업문제(학업태만, 부진)	1	2	3	4
자기 이해 증진	1	2	3	4
외로움	1	2	3	4

<부록 5>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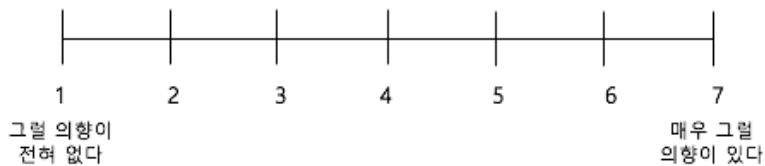
- (1) 당신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학내 상담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한 상담실에 ‘마음건강 검진의 날’이라고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서 상담가들이 즉석에서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심리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수업에 가기 전까지 아직 두 시간이 남아있어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a) 안내 데스크에 가서 심리 검사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b) 얼마나 이 검사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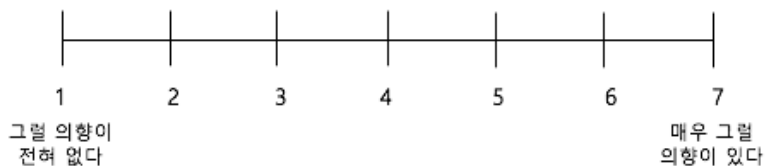
- (2) 당신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학생회관에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학생회관에서는 30분짜리 정신건강에 대한 워크샵이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마침 당신이 고민하는 주제였습니다. 다음 수업에 가기 전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있어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워크샵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 외에 당신이 이 워크샵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a) 워크샵 시작 전까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워크샵 진행 도우미에게 워크샵에 대해 더 물어볼 의향, 그리고(b) 워크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3) 앞으로 3개월 안에, 당신은 최근에 애인과 헤어져서 심한 우울감을 보이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 지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 학교 상담 센터를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상담가 중 한 명이 마침 그 때 시간이 비어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당신이 상담가를 만났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수업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 두 시간이 남은 상태여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a)상담가와 만나 1회 무료 상담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의향, 그리고(b) 몇 주후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4) 당신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앞으로의 학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친절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학업 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요즘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신의 걱정거리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은 상담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면서, 학내 상담 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a) 만남 후 상담 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와의 약속을 잡을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록 6> 행동

(1)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 상담 센터 사이트로 연결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2) 상담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는 학내 워크숍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3) 대학 상담 센터에 상담 예약을 잡고 담당 상담가와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적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학내 상담 센터는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입니다.

예 / 아니오

(4) 대학 상담 센터에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겠습니까? 상담 센터는 비밀을 보장하며, 무료입니다.

예 / 아니오

Abstract

What Influences the Decision to Get Counseling? Understanding the Help-Seeking Decisions using the Prototype Willingness Model

Woorim Kim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large body of prior research in professional help-seeking has been establish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cision to seek help is made through intentional and rational processes. Dual-process theory challenges this idea, suggesting that not only the rational process(the rational pathway) but also the heuristic process(the social reaction pathway) affect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how two different information-processing pathways influence the help-seeking decisions by using Prototype Willingness model. Online questionnaire data was collected from 226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used to test the model. Results indicated that the social reaction pathway significantly predicts the help-seeking decision, while the rational pathway fails to predict.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 help-seeking decision, prototype willingness model, dual-process theory

Student Number : 2015-21557